

# ‘스위트홈’ 송강 “현수, 나랑 닮아… 눈빛보다 내면 감정 신경”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으로 연기 변신해

“5kg 감량하고 키도 작아보이게 노력했다”

“8개월 작업 애착… 시즌2 한다면 하고 싶어”

데뷔 4년차 신인 배우 송강이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 주연을 맡으며 주목받고 있다.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로맨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으로 얼굴을 알린 그는 어둡고 내성적인 히키코모리로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22일 화상 인터뷰로 만난 송강은 “스위트홈에 출연하며 감정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돌아봤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스위트홈’은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현수(송강 분)가 가족을 잃고 이사 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다.

고립된 공간에서 인간이 괴물이 되어가는 비극적 상황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 괴물과의 박진감 넘치는 사투가 몰입감을 높인다.

송강은 그린홈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현수로 분해 생존자들의 중심에서 극을 이끈다.

가족을 모두 잃은 후 그린홈으로 이사 온 현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지만 욕망에 잠식된 사람들이 괴물로 변해버리는 괴현상이 시작된 후 살기 위해 집을 나선다.

“현수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컸다”는 그는 결국 자기 자신에서 현수의 모습을 찾았다

고 했다. “현수는 제 안의 가장 내성적인 모습으로, 환영은 제 안의 가장 어둡고 악한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눈으로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눈빛보다 내면의 감정을 신경 썼다”며 “어떻게 하면 내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연기했다”고 돌아봤다.

현수와 의 싱크로율이 높다는 판단이다.

송강은 “처음에 대본을 보는데 현수의 감정이 와 닿았다. 어두운 면이 너무나 와 닿아서 나랑 비슷한 면이 많구나 느꼈다.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수 표현하기 위해 잘생김 지웠다”

스위트홈은 내재된 욕망이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흥미로운 설정과 서스펜스 넘치는 스토리로 누적 조회 수 12억 뷰를 달성한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 웹툰의 팬이라는 그는 “현수가 괴물들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공포감과 이겨나가는 과정을 재밌게 봤다”며 “캐스팅 소식에 기뻐했다”고 떠올렸다.

송강은 오디션을 통해 주연으로 발탁됐다. ‘좋아하면 울리는’ 연출자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봤다고 한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송강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내 스스로의 모습이 매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디션에서도 송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담백하게 임했다”고 설명했다.

히키코모리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외적인 변화도 꾀했다. 왜소한 체격이라는 설정에 맞춰 5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도 있었다.

송강은 “현수를 표현할 때 최대한 왜소해 보이려 노력했다”며 “일부러 어깨를 구부리고 목도 길게 빼고, 키도 작아보이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잘생겼다는 칭찬은 감사했지만, 촬영장에서 감독님도 계속 ‘잘생긴 걸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디렉팅에 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분장도 많이 했다”고 부연했다.

이승복 PD와의 작업과 관련해서는 “이승복 감독님이 “너를 믿을테니 너도 나를 믿고 해봐라”라고 해주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다”며 “최대한 저를 믿고 맡겨주셨다”고 기억했다.

### “소년 이미지 벗고 성숙한 모습 보여주고 싶다”

‘K-크리처극’의 탄생을 알린 ‘스위트홈’은 화제 몰이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공개 이후 한국은 물론 태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총 8개국 넷플릭스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송강은 “아직 실감이 잘 안 난다. 해외 팬분들의 호평이 감사하고 열렬하다”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모습을 잘 보여드



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사를 했다. 이어 “8개월 동안 작업을 한 작품이라 애착이 있고, 완성된 시리즈를 보면서 재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했다.

시즌2 출연 계획을 묻는 물음에는 “반응이 좋으면 찍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었다. 만약 제작된다면 지키고자 하는 욕망을 더 표현하고 싶다는 상상도 하고 있다”며 “군 입대는 당연한 의무지만 지금은 작품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송현수’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캐릭터를 잘 소화하고 표현했다는 의미를 담아 ‘송현수’라고 불리고 싶어요. 저 스스로도 대본에도 그렇게 적었죠. 저 자신에 대한 점수는 75점 정도예요. 감독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물모델로는 할리우드 배우 톰하디를 꼽았다. “최근에 톰하디의 레전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두 인물을 다른 사람이 연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 저 캐릭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담백하게 연기를 잘해내는 점을 닮고 싶다.”

2017년 tvN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로 데뷔한 송강은 ‘좋아하면 울리는’ 등 주로 로맨스물에서 두각을 보였다. 내년에는 tvN 새 드라마 ‘나빌레라’로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그는 “감정을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소년 같은 이미지의 캐릭터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 비투비 정일훈, ‘대마초 혐의’ 적발…수사중 입대 논란

지난해부터 수사해… ‘도피성 입대’ 논란될 듯

소속사 큐브 “향후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26)이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일훈은 경찰이 관련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 군에 입대했다.

21일 경찰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정일훈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정일훈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다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통해 제3자 등으로

부터 마약을 구매해,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일훈이 지난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한 뒤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훈은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 경찰이 정일훈의 마약 혐의 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그가 관련 수사를 받던 중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일훈은 지난 2012년 비투비 멤버들과 함께 데뷔했다. 비투비의 ‘뽀뽀뽀뽀 댄스’ ‘크리처’ 등을 작곡하며 ‘작곡가’로도 통한다. 비투비는 그동안 큰 구석이 없던 팀이지만, 이번 건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일훈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정일훈은 보도된 바와 같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 몬스타엑스, 각급 해외 연말 결산차트서 두각

차세대 한류 그룹 ‘몬스타엑스’가 각급 해외 연말 결산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1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최근 미국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YEAR-END CHARTS)의 ‘톱 앨범 세일즈’와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에서 각각 84위, 53위를 기록했다.

또한 세계 SNS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50’ 랭킹에서 11위에 등극하며, 글로벌 팬들의 위력을 보였다.

최근 몬스타엑스는 미국의 유명 매거진인 틴보그가 선정한 ‘2020년 K-POP 최고의 순간’에 이름을 올렸다.

에리카 제랄드 메이슨은 12월호 기사를 통해 “몬스타엑스가 ‘러브 킬러(Love Kill)’와 함께 최고의 열망을 가져다줬다”고 전했다.

영국 매거진 데이즈드는 ‘2020년 최고

의 K-팝 톱 40’에 몬스타엑스의 ‘판타지아(FANTASIA)’를 선정했다. 앞서 몬스타엑스는 미국 타임지의 ‘2020년 케이팝을 대표한 노래와 앨범’, 팝크러쉬의 ‘2020년 최고의 앨범 25’에도 ‘올 어바웃 러브’가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틴블러가 발표한 2020년 연말 차트 ‘이어 인 리뷰 2020’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2020 톱 K-Pop 그룹’ 부문에서 8위를 달성했다. 이어 100명의 아티스트 개인 순위인 ‘2020 톱 K-팝 스타’ 부문에 여섯 멤버 전원(서누, 민혁, 기현, 현원, 주현, 아이엠)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2월 미국에서 첫 정규앨범 ‘올 어바웃 러브’를 발표하고 ‘빌보드 200’ 5위 진입을 비롯해 총 7개 차트에서 10위권에 안착했다.

## 나얼, 음원강자 확인… ‘서로를 위한 것’ 차트 싹쓸이

EP 사운드 중심으로 한 팝 풍의 마이너 발라드

보컬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 멤버 겸 솔로 가수 나얼이 ‘음원강자’의 명성을 확인했다.

22일 소속사 톱플레이뮤직에 따르면, 나얼이 전날 오후 6시에 공개한 새 싱글 ‘서로를 위한 것’은 이날 오전 지니뮤직, 벅스 등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서로를 위한 것’은 80-90년대 상징인 EP(일렉트릭 피아노)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팝

(POP) 풍의 마이너 발라드다.

이미 해어진 연인과의 우연한 마주침의 애절한 상황을 노래했다. 나얼의 ‘폭발적인 고음’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앞서 나얼이 발표한 2015년 ‘같은 시간 속의 너’, 2017년 ‘기억의 빈 자리’를 잇는 이별 3부작의 피날레다.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오랜 연인에서, 이제는 해어진 남자가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는 이미지 형식의 영상을 담았다. 배우 지수가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나얼은 2018년 발매한 솔로 정규 2집 ‘사운드 닥트린’, 지난해 공개한 브라운아이드소울 정규 5집 하프 앨범 ‘잇 솔 라이즈’ 등으로 연달아 음악성을 인정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나얼의 음악세계(NAMMSE)’를 오픈했다. 그가 평소 미디어에 모습을 공개해오지 않았던 만큼, 팬들의 반응이 크다.

## 현빈, “교섭, 황정민과 호흡 좋았다”

배우 현빈이 럭셔리 워치 브랜드 오메가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매거진 에스콰이어의 커버를 장식했다.

21일 남성 패션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에스콰이어는 현빈과 함께 한 화보 사진과 인터뷰를 공개했다.

현빈은 겨울 감성 물론 풍기는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 계열의 니트와 코트를 매치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난 2월 막을 내린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국 재벌 가문의 딸 윤세리(손예진 분)와 사랑에 빠진 북한 군인 리정혁을 연기한 현빈은 넷플릭스 공개와 함께 세계적인 인기를 누

렸다.

현빈은 “‘사랑의 불시착’은 박지은 작가의 대사가 워낙 재밌어서 의도만 고스란히 전달해도 장면이 살아나더라”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함께 출연한 김정난, 김선영 등의 선배를 언급하며 “선배들이 대사 맛도 잘 살려주고, 상황도 훨씬 더 재밌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회상했다.

지난 9월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마친 차기작 영화 ‘교섭’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해외 로케이션을 온전히 끝낸 작품으로 알고 있다”며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동선도 일정 부분 제한받는 등 철저한 방역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 허각, 데뷔 10주년 스페셜 앨범 ‘헬로’ 28일 발매

가수 허각이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28일 스페셜 앨범 ‘헬로(Hello)’를 발매한다.

타이틀곡은 ‘우리 어쩌다 헤어진 걸까’다. 풍성한 악기 사운드와 서정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멜로디의 곡이다.

허각의 호소력 짙은 보컬이 돋보인다. 노을, V.O.S, 루나 등의 가수들과 작업해 온 작곡팀 ‘빅이로빈(bigguyrobin)’이 작업했다.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노을 ‘전부 너였다’ 등을 작사한 양재선 작사가가 노랫말을 붙였다.

어쩌다 찾아온 헤어짐에 대한 아픈 마음을 현실적인 가사로 녹여냈다.

앨범에는 허각이 10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해 준 이들에 대한 마음을 작사한 ‘베스트 뷰(Best view)’, 허각이 10년 만에 다시 부른 ‘헬로(2020 Ver.)’, ‘고 싶단 말 밖에’(2020 Ver.)가 수록됐다.

더불어 허각의 베스트 곡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항기만 남아’, ‘사월의 눈’, ‘혼자, 한잔’, ‘바보야’, ‘마지막으로 안아도 될까’, ‘흔한 이별’, ‘듣고 싶단 말’을 리믹스 처리해 수록했다.